

2025년 동아시아 교원 연수 「현장 연수」 1·2기 추진계획안

2025. 10. 동북아역사재단(종합교육연수원)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연수에 초대합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중원문화 국가유산 등을 탐방하며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사 교육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 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구분 | 안동 '흘러가는 시간 속에 깃든 전통문화의 자긍심' | 충주 '돌과 철에 새긴 중원의 역사 선사에서 삼국까지' |
|--------------------|---|--|
| 연수 기수 | 1기 | 2기 |
| 연수 강사 |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정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호태(임청각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성호(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 소장) 장준식 (국원문화재연구원 원장) |
| 참여 대상 | 초·중등 교원 | |
| 답사 장소 ※ 붙임파일 참조 |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 |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 |
| 신청 기간 | 공고 게시일~10.20.(월) ※연수 대상자 안내: 2025.10.22.(수) 예정 | |
| 진행 시기 | 2025.11.08.(토) | 2025.11.22.(토) |
| 집결 지역 | (수 도 권) 수서역 5번 출구 (비수도권) 안동 하회마을 정문 | (비수도권) 충주박물관 정문 |
| 모집 인원 | 25명 내외 | 25명 내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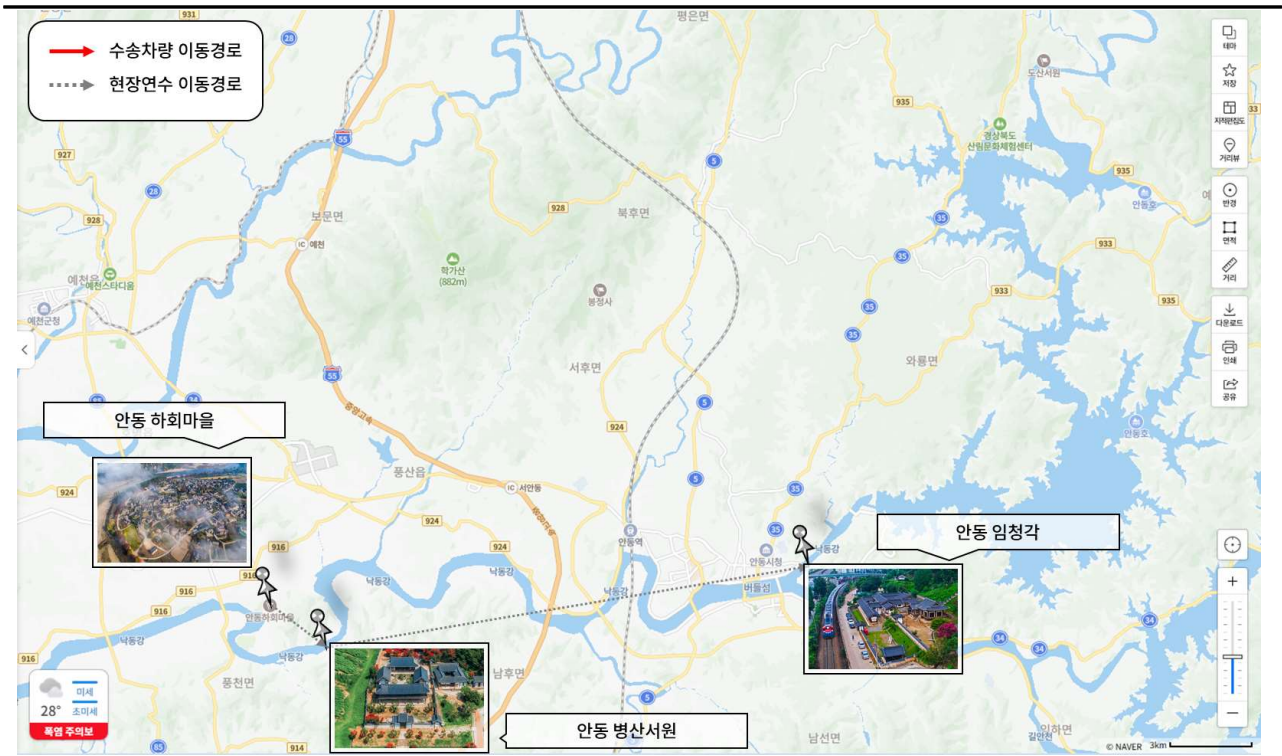
※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 추가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연수 계획(안)

| 구분 | 안동 | | 구분 | 충주 | |
|---------------------|----------------------------|------------------------|--------------------|-----------------------------|------------------------------|
| | ‘흘러가는 시간 속에 깃든 전통문화의 자금삼’ | | | ‘돌과 철에 새긴 중원의 역사 선사에서 삼국까지’ | |
| 시간 | 일정 | 비고 | 시간 | 일정(안) | 비고 |
| ~08:00 | 집결지 집결 | 수서역 5번출구 (이마트 정문 앞) | ~09:00 | 집결지 집결 | 수서역 5번출구 (이마트 정문 앞) |
| 0800~1000 (120') | 이동 서울→안동 출발 | 비수도권 지역 안동 하회마을 집결 | 0900~1030 (90') | 이동 서울→충주 출발 | 비수도권 지역 충주박물관 집결 |
| 1000~1200 (120') | 현장 도착 및 연수 소개 안동 지역사 소개 | 안동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 1030~1200 (90') | 현장 도착 및 연수 소개 충주 지역사 소개 | 충주박물관 및 충주 탐평리 칠층석탑 |
| 1200~1330 (90') | 점심 식사 | 안동 하회마을 인근 식당 | 1200~1330 (90') | 점심 식사 | 충주박물관 인근 식당 |
| 1330~1400 (30') | 이동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임청각 | 1330~1400 (30') | 중원 문화사 (삼국~통일신라시대) | 충주 탐평리 칠층석탑 |
| 1400~1530 (90') | 일제강점기 인물사 | 안동 임청각 (독립운동가 이상룡) | 1400~1410 (10') | 이동 | 충주 탐평리 칠층석탑 →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
| 1530~1600 (30') | 질의응답 및 답사 종료 | | 1410~1540 (90') | 중원 문화사 (삼국시대 고구려) |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
| | | | 1540~1600 (20') | 이동 |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 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
| | | | 1600~1650 (50') | 중원 문화사 (제철기술과 교류) | 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
| | | | 1650~1700 (10') | 질의응답 및 답사 종료 |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2025년 동아시아 교원연수 「현장 연수」 1기(안동) 이동 경로안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씨족마을, 안동 하회마을
 세계유산이자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춘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씨족마을이다.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데서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600여 년 동안 류씨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엔 유교 전통과 민속 문화, 조선시대 건축물이 남아있다. 특히 조선의 유학자 류운룡과 임진왜란의 공신 류성룡 형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다.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서원,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류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으로, 고려 시대 사림의 교육 기관인 풍악서당에서 유래했다.
 병산이라는 이름은 주변 경관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데서 비롯되었다. 해가 질 무렵 만대루에 올라 강 건너 병산을 바라보면, 산과 강에 비친 노을이 장관을 이룬다. 낙동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의 의미를 보여준다.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집, 안동 임청각
 안동 임청각은 조선 중기에 지어진 고택으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다. 본래 99칸 규모의 대저택이었으나 1942년 일제의 중앙선 철도 부설로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는 약 70칸만 남아 있다. 별당 건물인 군자정은 보물로 지정된 전형적인 중기 건축물이다. 임청각은 이상룡을 비롯해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정신을 상징한다. 최근 철로 이설과 복원 사업이 추진되며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2025년 동아시아 교원연수 「현장 연수」 2기(충주 이동) 경로안



중원문화의 중심, 충주박물관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을 모아 1986년 유물전시관으로 시작한 이래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으로 이전,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남한강과 중앙탑이 잘 어울리는 사적공원 내에 위치하여 제1관, 제2관과 야외전시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관은 불교미술품과 민속품 위주로 전시하였으며 제2관은 선사삼국실, 고려조선실, 충주항쟁실, 충주명현실 4실로 구분하여 충주의 역사를 이해 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위엄,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은 통일신라 후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탑으로, 남한강과 어우러진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2단 기단 위에 7층 탑신을 올린 구조로 '중앙탑'이라 불리기도 한다. 각 면에 새긴 기둥 조각과 치켜올린 지붕돌이 특징이며, 이중 받침의 머리장식은 독특한 형식이다. 1917년 보수 때 고려시대 거울이 발견돼 2차 봉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형 논란이 있으나 통일신라 석탑의 정수를 보여준다.



고구려 남하의 기상, 충주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국보 제205호)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석비로, 1979년 충주시 입석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개척한 뒤 세운 기념비로 추정되며, 비면에는 '고려대왕(高麗大王)', '제위(諸位)', '사자(使者)' 등 고구려를 가리키는 글자와 관직명이 남아있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고 충주까지 영토를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삼국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역사적 유적이다.



삼국의 숨결을 품은 중원의 땅, 국립충원문화유산연구소

충주는 만주벌판의 고구려, 찬란한 백제, 통일 신라의 역사를 품은 국토의 중심, 중원경이다. 남한강과 한강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국의 치열한 다툼과 철산지 확보 경쟁의 흔적이 유적으로 남았다. 국립충원문화유산연구소는 2007년 설립되어 고대 유물 발굴과 복원, 제철 기술 연구를 통해 삼국시대 문화를 오늘로 되살린다. 1500여 년 전 장군들의 통일 꿈과 우륵의 가야금 선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다.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